

초청논문

## 건강한 식단 선택을 위한 넛지와 인센티브 사례

신창섭<sup>1)</sup>

### 국문요약

‘넛지(Nudge)’란 선택 설계자가 취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전에는 홍보 캠페인, 교육, 인센티브, 처벌 등의 프레임으로 바라보았다면, 이제 넛지라는 방식을 추가하여 더 넓은 프레임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행태의 영향을 많이 받고, 건강 환경 조성이 중요한 점하는 비전염성 질환의 경우 인센티브와 넛지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 각국이 건강한 식단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네 가지 대표적인 인센티브와 넛지 전략을 살펴본다.

주요어 : 넛지, 인센티브, 제한된 합리성, 비전염성 질환, 건강한 식단

1)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수로 (104onlyone@daum.net)

## Exploratory research on Fair trade value chains and certification systems

Shin, Changsub<sup>1)</sup>

### Abstract

Nudging refers to a method employed by choice architects to subtly influence people's behavior in a predictable direction without forbidding any options or significantly altering their economic incentives. While promoting healthy food choices has traditionally been approached through campaigns, education, incentives, and penalties, the concept of nudging offers a broader framework.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for non-communicable diseases, which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lifestyle factors such as diet, making health environment creation crucial. Incentives and nudging strategies can be highly effectiv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plores four key incentive and nudging strategies implemented worldwide to promote healthier diets.

Key words : nudge, incentive, bounded rationality, noncommunicable disease, healthy diet

---

1) Sungkonghoe University, doctoral coursework completion, Seoul, Korea  
(104onlyone@daum.net)

## I. 서론

1999년 Aad Kie boom이라는 경제학자가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의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검은색 파리를 그려 넣었다. 이것의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이전의 어떤 캠페인도 달성하지 못했던 성과를 올렸는데, 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의 양을 80% 줄인 것이다. Aad Kie boom은 소변을 보는 행위의 맥락을 바꾼 것이다. 선택 설계자(choice architect)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배경이 되는 ‘정황, 맥락’을 만드는 사람을 뜻한다(Thaler & Sunstein, 2021; 16). 그리고 ‘넛지(Nudge)’란 선택 설계자가 취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Thaler & Sunstein, 2021; 21).

어린이 혹은 어른들이 어떻게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게 할 수 있을까? 선택 설계자로서 부모, 식품 기업, 보건당국은 이런 고민을 한다. 이들이 사람들의 행동을 전통적으로 바라보던 프레임은 훈육, 가격, 캠페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었다. 이제 이에 덧붙여 행동의 맥락을 바꿈으로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하는 넛지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aler & Sunstein(2021; 25)이 말한 대로 사람들은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넛지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022년 4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간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접근성 제고, 공공의료 강화 등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이 우선되어 왔다. 그 사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신체 활동은 감소하고 심뇌혈관, 비만 등 만성질환 관련 지표는 악화되어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의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7).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2; 7)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행태 개선이 필수적이며 사전 예방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건강 환경 조성을 통한 생활행태 개선에는 인센티브를 비롯한 넛지 전략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세계 각국이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행태 개선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인센티브와 넛지 정책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제한된 합리성과 넛지

넛지의 본질은 Herbert A. Simon의 제한적 합리성 이론에 입각한다(김진경, 2022: 136). 제한된 합리성 이론은 고전과 경제학의 합리적 인간의 가정과는 다르게 인간은 계산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최적의 대안을 찾기보다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찾다고 본다(Simon, 1957).

Simon(1957: 81)은 합리성은 3가지 방식으로 제약받는다고 말한다. 첫째는 현실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두 번째는 선택에 따른 결과를 완벽하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imon이 제한된 합리성을 말한 이유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함은 아니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의사결정의 원리들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Simon은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을 제안한다.

절차적 합리성이란 행위자의 목표와 행위 선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합리성을 말한다(Altman et al., 2021: 7). 인간의 계산 능력을 넘어서는 복잡한 체계를 다룰 때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택에 도달하기 위한 합당한 과정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문제를 다룰 때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까? Tversky & Kahneman(1974)는 인간은 쉽고 익숙한 문제를 다룰 때도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인간은 어림짐작rule of thumbs/휴리스틱heuristic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Thaler & Sunstein, 2021: 46). 이것은 편향 bias이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예상이 가능한 체계적인 편향이다. Thaler & Sunstein(2021: 41)은 이러한 체계적인 편향을 갖는 어림짐작을 자동 시스템이라 부르고, 절차적 합리성을 쫓는 인식 체계는 숙고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Altman(2020)은 뉴질랜드 피트니스 산업에서 트레이너들의 자격 정보가 민간 자율 기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음에도 왜 소비자들은 그 정보보다 트레이너들의 외모나 육체적 매력도를 트레이너의 역량의 신호로 받아들이는지 묻고 있다. Altman(2020)은 그 이유를 소비자들이 노력과 비용이 덜 들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휴리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표 1〉 두 가지 인식 체계

자동 시스템(Automatic System)	숙고 시스템(Reflective System)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있다
노력이 필요 없다	노력이 요구된다
결합적이다	연역적이다
신속하다	느리다
무의식적이다	의식적이다
능란하다	규칙을 따른다
비용이 적게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자료: Thaler & Sunstein(2021: 41)에서 저자가 수정하여 인용

Altman(2020)이 연구한 사례는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존재함에도 관리 부실로 줄어들지 않는 혼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생협 단체 한 곳은 유통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유통인증제도는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훨씬 더 줄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생산과 유통 정보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은 소수였고, 유통인증 로고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로고와 비슷하여 기존 로고의 대표성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소비자들은 더 익숙한 친환경농산물 로고, 혹은 생협의 브랜드를 신뢰의 신호로 휴리스틱하게 사용하였으리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넋지는 소비자들이 제품/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체계적인 편향을 역이용하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디폴트 값(초기 선택값)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Thaler & Sunstein(2021: 63)은 이것을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결정 이후 다른 옵션으로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설계자들은 권장할 만한 선택지를 디폴트 옵션으로 디자인한다. Thaler & Sunstein(2021)은 장기기증, 퇴직연금 가입 등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스마트폰 초기 설정, 자선단체의 기부금 모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넋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 2. 만성질환 혹은 비전염성 질환의 이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질병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전염성, 모성, 주산기 및 영양 이상 상태, ② 비전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이하 NCDs) ③ 손상 등이다.

이중 비전염성 질환(NCDs)이란 전염이 되지 않는 비감염성 질환으로, 여러 건강 위험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고, 질병의 원인이 불명확하며, 질병 발생 시점을 정확히 알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완치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대표적으로 만성질환 또는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우는 암, 당뇨, 고혈압, 내분비·혈액·면역 장애 등이 포함된다(이상은 & 조경숙, 2021; 166).

비전염성 질환을 부르는 명칭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 생활에 병으로 인한 제약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태라는 의미로 만성질환(chronic disease)이라 부른다(이상은 & 조경숙, 2021; 166).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생활습관병(life-style related disease),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비슷하게 문명병(Zivilisationkrankheit)등의 용어로 부른다(남재현, 2004).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2003년까지 '성인병'이란 명칭으로 부르다가, 성인에게만 발병하는 것도 아니고, 성인이라는 것이 발병의 원인도 아니므로, 2003년 대한내과학회에서 '생활습관병'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기로 하였다(남재현, 2004). 한편 만성질환이란 명칭도 학계와 보건당국에서 비슷한 정도로 사용하여 왔고, 보건당국에서는 주로 비전염성 질환, 만성질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 원인의 74.3%를 차지하고(질병관리청, 2023; 2),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83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0.9% 차지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이러한 경향성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다(WCRF, 2018; 7).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중 하나는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이다. 이 세부 목표 중 하나가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1/3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WHO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비전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글로벌 액션 플랜'을 실행하였다. 이것은 비전염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WHO는 비전염성 질환이 술, 담배, 정크푸드 섭취 등 생활행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빈곤층이 더 취약하고, 건강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빈곤과 비전염성 질환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WHO, 2013).

비전염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전문가들의 권고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통곡물, 채소, 과일을 위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패스트푸드, 가당 음료, 짠 음식, 가공 식품 등의 섭취를 제한할 것과 함께 고용량의 건강 기능식품에 의존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WCRF, 2018; 15-38).

### III. 비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와 넋지 사례

세계암연구재단(World Cancer Research Fund, 이하 WCRF)은 비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식단, 영양, 신체 활동과 관련된 정책 개발과 실행을 위해 NOURISHING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영양 라벨(Nutrition Label)에 대한 규정,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Offer healthy food), 경제적 도구를 사용하는 것(Use of economic tools), 식품 광고를 제한하는 것(Restrict food advertising), 식품의 영양 품질을 개선하는 것(Improve nutritional quality of whole food supply), 건강한 식품 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것(Set incentives and rules), 식품 공급망을 활용하는 것(Harness food supply chain), 대중에게 식품과 영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Inform people about food and nutrition), 영양에 대한 상담(Nutrition advice and counselling), 영양 교육 및 기술 제공(Give nutrition education and skills) 등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WCRF의 NOURISHING 프레임워크는 분야별로 세계 각 국의 정책을 수집하여 보건당국들이 참고하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래 사례들은 이 프레임워크로부터 몇 가지를 추출한 것이다.

#### 1. 노르웨이 : 더 건강한 식단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 healthier diet)<sup>1)</sup>

노르웨이는 2015년 국가 공중 보건 목표를 제정하였다. 네 가지 목표를 선언하였는데, 첫째,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세 나라 중 하나가 되는 것, 둘째, 국민 모두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며 기대여명을 늘리는 것, 셋째, 건강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 넷째, 전체 인구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등이다.

노르웨이 보건당국과 식품 산업계는 이러한 목표 달성과 <노르웨이 식단 가이드라인>에 맞는 균형잡힌 식단 확산을 위해 자율적인 파트너십을 맺기로 하였다. 이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식품 기업들은 6개 우선 분야에 걸쳐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그 이행 상황을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 분야 중 하나는 건강한 식품을 의미하는 Keyhole 라벨의 부착이다.

1) 이 절의 내용은 파트너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노르웨이의 Keyhole(Nøkkelhullet) 라벨은 건강한 식품을 위해 만들어진 자발적인 북유럽 식품 라벨이다. 이 라벨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에서 2009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건강한 식품의 인지를 더 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eyhole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동일한 유형의 다른 제품에 비해 더 많은 식이섬유와 통곡물, 적은 포화지방, 염분, 설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라벨은 32개 식품 제품군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각 제품군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Keyhole 라벨이 부착된 아침 시리얼은 더 많은 식이섬유와 적은 설탕을 포함하고, 육류 제품의 경우 포화지방과 염분 비율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Keyhole 라벨은 노르웨이 보건국과 노르웨이 식품 안전국에서 관리한다. 라벨 사용은 자발적이지만, 제조업체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25년까지 전체 식품의 20%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파트너십의 목표이다. 이 라벨이 확산되어 건강한 식품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기업들의 모니터링에 의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Keyhole 라벨은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넋지가 될 것이다.

라벨 사용 외에도 2025년까지 염분 함량 감소, 첨가당 함량 감소, 포화지방 감소, 과일, 베리, 채소, 통곡물, 수산물 섭취 증가 등의 분야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 2. 미국 : 데스티니 헬스 플랜<sup>1)</sup>

데스티니 헬스 플랜은 보험 회사들이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안한 프로그램이다. 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대응책도 되고, 실제로 보험료 지불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었다. 미국 전역은 아니고 일리노이, 위스콘신, 미시건, 콜로라도 등 4개 주의 보험 회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플랜의 주요 내용은 활력 프로그램(Health Vitality Program)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참여자는 운동 참여, 혈압 측정 등을 통해 활력 화폐 Vitality Bucks 획득하고, 이 활력 화폐로 항공권, 호텔 투숙권, 잡지 구독권, 가전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넋지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1인 1스마트폰이 현실화된 우리나라에서 보험 회사는 걸음 수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금융 회사나 다른 업종의 회사들도 자신들의 마케팅 목적 혹은 건강 정보 획득을 위해 걸음 수에 포인트를 제공하는 곳들을 많이 찾아볼 수 <sup>2)</sup>있다.

1) 이 절의 내용은 Thaler & Sunstein(2021; 341)을 참고하였다.



### 3. 벨기에 : 지속 가능함 급식소 라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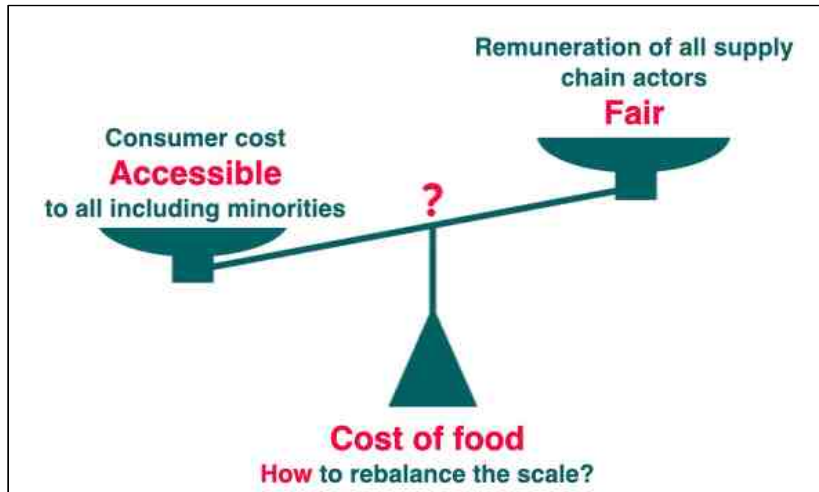
이 라벨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유치원, 학교, 대학, 레크리에이션 센터, 병원, 요양 시설, 요양원, 기업, 행정 기관 등 물론 지역에서 집단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 법인, 매출 규모 등의 제한은 없으며, 주 1회 이상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라벨을 받을 수 있다.

라벨 수여 기준은 첨가되는 설탕 함량을 줄인다거나, 지방 함량이 적다거나, 소포장이거나, 계절 과일과 채소를 제공하는 것, 공정무역, 친환경 식품, 동물 복지 등의 요인들을 고려한다. 이 라벨을 받기 위해서 지원기관인 Manger Demain 조직으로부터 18개월 동안 지원을 받게 되며, 이 지원은 현장 평가, 집체 교육 프로그램, 공공 조달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 케이스 스터디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로컬 식재료 조달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제공한다. 라벨은 3단계(BRAVO, FAMEUX, EXCELL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3년마다 갱신된다.

건강한 식단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래 그림은 지속 가능한 식품을 제공하는 일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ocal on your plate(du local dans l’assiette)”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가격을 높이지 않으면서 로컬 혹은 친환경 식품을 제공하는 급식소에게 취급량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로컬 제품에 대한 구매 대금의 최대 50%, 로컬 & 유기농 제품에 대한 구매 대금의 최대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는 간단해서 공급업체의 공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단 지원 금액은 식사당 €0.5가 상한이다. 이 프로그램의 인센티브는 급식소에게 매력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

2) 이 절의 내용은 Manger Demain의 홈페이지를 주로 참고하였다.



〈그림 1〉 지속가능한 식품을 제공하는 일 - 어떻게 균형을 맞추을까?

#### 4. 미국 : Shop Healthy NYC<sup>1)</sup>

Shop Healthy NYC은 식품 소매업자, 식품 공급자, 커뮤니티가 함께 협업하여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을 가진 주민들에게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Bronx, Brooklyn, Manhattan 지역 2,000개의 상점이 참여하고 있다.

매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식품 소매점은 건강한 식품의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진열한다. 건강한 식품 매출액이 증가하면 지자체로부터 상장을 받고, 이 상장을 매장에 전시하고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상장을 수여하는 것 이외에도 지자체는 건강한 식품에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고, 전문가들이 매장을 방문하여 자문을 제공하며, 진열장이나 쇼핑백 등을 매장에 제공하기도 한다.

지역에 식품 소매점이 없어지면 해당 지역의 건강 상태는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다. 주민들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정크푸드에 의존하거나 식품 섭취 횟수와 양이 줄 수도 있다. 또한 진열 방식을 바꿈으로써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건강한 식품을 더 구입하게 된다는 증거는 많은 행동경제학 관련 연구들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건강한 식품을 취급하는 식품 소매점이 존재하는 것은 비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가장 경제적인 수단일 수 있다.

1) 이 절의 내용은 Shop Healthy NYC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Proclamations and certificates are great opportunities to recognize store owners.

〈그림 2〉 Shop Healthy NYC 어워드

## IV. 결론

이상으로 건강한 식단 확산을 위한 몇 가지 인센티브와 넋지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세 가지 추가적인 논의 사항을 살펴보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겠다.

첫째, 넋지는 강제나 상당한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인센티브 없이 배치와 맥락을 바꿈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제도 수준에서도 넋지 전략이 존재하겠지만, 제품/서비스의 디자인과 배치, 매장의 디자인과 분위기, 점원의 말과 응대 등 미시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넋지 전략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둘째, 식품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1회 구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품 선택시 자동 시스템인 어림집작을 사용하겠지만, 소매상, 도매상들은 어림집작으로 상품을 매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숙고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밀하게 설계된 인센티브나 관리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식품의 라벨은 굉장히 편리한 넋지이기는 한데, 라벨의 신뢰성이 훼손되면 다시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건강한 식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의 지도와 스펙트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이 건강한 식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건강한 식단을 표시하는 라벨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하는 라벨이 같은 수는 없을 것이다. ‘건강’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두 이미지 - 의약품과 유사하거나 일반 식품과 유사 -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차별화할지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김진경(2022),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이론에 따른 넛지디자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요인분석,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70, 135-144.
- 남재현, 2004.5.21. 질병 양상 변화, 생활습관병,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740>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홈페이지. <https://platform.who.int/mortality>
- 이상은·조경숙(2021), 우리나라 만성질환의 발생과 관리 현황, *주간 건강과 질병*, 14(4),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청(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2),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책보고서.
- Altman, H. J. R. (2020), *The Behavioural Economics of Organizational Inefficiency: The Example of the New Zealand Fitness Industry*, Master's thesi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 Altman, H. J. R., Altman, M., Torgler, B., & Whyte, S. (2021). Beauty and preferences formation exemplified in the sports market (No. 2021-10). CREMA Working Paper.
- Manger Demain 홈페이지 : <https://www.mangerdemain.be/label-cantines-durables/>
- Partnership for a healthier diet 홈페이지 : <https://www.helsedirektoratet.no/english/partnership-for-a-healthier-diet>
- Shop Healthy NYC 홈페이지 : <https://www.nyc.gov/site/doh/health/neighborhood-health/shop-health.page#retail>
- Simon, H. A., & Barnard, C. I. (1959). *Administrative behavior: A study of decision-making processe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acmillan.
- Thaler, Richard H. & Cass R. Sunstein, (2008), *Nudge : Improving Decision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이경식 옮김, 최정규 감수, 2021, 넛지,(20판), 리터스

북.

Tversky, A., & Kahneman, D. (1974).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Biases in judgments reveal some heuristics of thinking under uncertainty. *Science*, 185(4157), 1124-113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Global Action Plan :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

World Cancer Research Fund(2018), Recommendations and public health and policy implications,

논문접수일 : 2024년 8월 20일
심사완료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8월 30일